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학대의 관련성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ves and their Psychological Abuse

박지선, 류한수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Ji-Sun Park(lundy@hanmail.net), Han Su Ryu(yuhansu@wsu.ac.kr)

요약

본 연구는 Lazarus *et al.*의 스트레스 이론을 기초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스트레스 인지)와 심리적 학대(대처행동)의 관련성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통계분석에는 대상자의 연령, 학력, 수입, 아내의 연령, 국적, 결혼지속기간,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및 심리적 학대에 모두 응답한 27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를 독립변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를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도 및 변수 간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CFI=0.909, RMSEA=0.057로 통계학적 허용기준을 충족시켰다. 변수 간 관련성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리적 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심리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남편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 중심어 : | 아내학대 | 심리적 학대 | 생활 스트레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fe and their psychological abuse based on the Stress theory of Lazarus *et al.* Data from 271 subjects that answered to all questions regarding the subjects' social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fe and their psychological abuse of their wife in statistical analyses. To analyze the data, a study model was set using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fe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their psychological abuse of their wife as a dependent variable and the goodness-of-fit of the model for the data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were reviewed us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goodness-of-fit index of the model satisfied the statistical acceptable standard with CFI=0.909 and RMSEA=0.05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indicated that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stress related to their wife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ir psychological abuse of their wife. This result indicates the necessity of intervention for management of the husbands' stress in order to prevent multi-cultural family husbands' psychological abuse of their wife.

■ keyword : | Wife Abuse | Psychological Abuse | Life Stress |

* 본 연구는 2012년 8월 국제고려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접수일자 : 2014년 08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9월 02일

수정일자 : 2014년 09월 02일

교신저자 : 류한수, e-mail : yuhansu@wsu.ac.kr

I. 서론

국경을 초월한 인구이동이 글로벌화 사회로의 진전을 대변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노동, 유학, 이민, 결혼, 방문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진 인구 유입 및 유출이 보편화된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한국은 최근 20여 년간 결혼을 통한 외국인 여성의 유입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2013년 현재, 한국의 국제결혼 총수(25,963건)가 전체 혼인건수(322,807건)의 8.7%를 차지하는 가운데 국제결혼 비중만 놓고 봤을 때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국제결혼의 29.5%)보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국제결혼의 70.5%)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1]. 이러한 배경에는 성비 불균형과 독신여성의 증가 등을 원인으로 한국인 남성이 아시아 국적의 외국인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 외국인 여성의 경우, 국제결혼이 노동이주보다 해외로의 접근이 용이하며 법적으로 안정된 체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2].

이와 같이 국제결혼으로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한국의 새로운 가족형태로 등장한 가운데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한국어 사용이 미숙한 경우가 많아 부부 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상호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켜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3]. 한편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아내학대(wife abuse) 및 살해,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등과 같은 소식이 매스컴 등을 통해 보도[4-6]되면서 다문화가족 내 갈등과 가정폭력의 문제가 더 이상 그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여성의 인권 침해를 강력히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하였고, 캄보디아와 필리핀 정부는 한국인 남성과의 결혼에 대해 잠정적인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학대유형에 있어서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심리적 학대의 측면에서도 그 심각성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몇몇 행정기관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이 단지 신체적 폭력에 대한 개념뿐만 아니라 정서적, 언어적 폭력과 같은 심리적 학대 차원에서도 살펴봐야 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사(2005)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아내 중 31.0%가 지난 1년간 남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어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7]. 또한 여성가족부 조사(2010)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의 49.1%가 지난 1년간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21.5%가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심리적, 정서적, 언어적 폭력 수준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8]. 이러한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처럼 행위가 분명하면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과 달리 언어폭력, 헐뜯기, 비난, 무시, 강요 등 행위의 범위가 폭넓고, 학대와 피학대 당사자 외에는 제 삼자를 통한 확인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피학대자에게 있어 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만큼이나 또는 그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다[9]. 또한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게 피학대자의 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는데 이를테면, 언어적 폭력만으로도 피학대자의 심리적 안녕감을 저해하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0][11].

이러한 경향을 살펴볼 때, 다문화가족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는 학대를 당한 당사자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이나 사회적 부적응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나아가 그 자녀에게도 폭력학습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의 악순환이 초래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12].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개입이 시급히 요구되며 무엇보다 심리적 학대의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다루는 연구에서는 보통 이론을 바탕으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도출하여 구체적인 가설을 구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학대와 관련하여 발생 원인을 탐색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론으로 Lazarus *et al.*(1984)가 제시한 스트레스 인지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에서는 스트레스란 개인과 개인을 둘

러싼 환경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같은 상황이라도 개인이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즉, 개인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어떻게 여기는가와 같이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개인의 대처행동(coping)에 대한 선택을 규정하게 되고, 나아가 개인의 심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인과과정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때, 대처(coping)란 생각, 모색, 선택, 포기와 같은 내적인 활동과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반응이나 행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압력을 처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13]. 아내학대를 이 이론에 대입해 보면,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스트레스로 인한 압력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대처행동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한 대처행동의 하나로 학대행위를 들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 남편은 문화적, 정서적으로 차이가 존재하는 외국인 아내와의 생활 속에서 아내로부터 겪는 여러 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히 해소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을 경우, 아내에 대한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형태의 행위를 취하는 것으로 대처한다는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아내학대 발생 원인에 대해 이론을 바탕으로 가설을 설정하여 검증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의식들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예방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Lazarus *et al.*(1984)의 스트레스 인지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스트레스 인지)와 심리적 학대(대처행동)간의 관련성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다.

II. 이론적 배경

1.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학대발생의 원인을 일련의 인과관계 속에서 살펴본 이론 중 Lazarus *et al.*(1984)의 스트레스 인지이론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이론을 기초로 아동학대, 노인학대, 아내학대 등의 발생 원인에 관해 실증적으로 검토한 연구 성과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먼저 아동학대의 발생과정을 살펴본 연구를 보면, Hillson *et al.*(1984)은 스트레스 인지이론을 응용하여 부모가 일상적인 양육과정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육아 부담 및 스트레스를 비롯하여 통제하기 어려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가 자녀에게 부적절한 행동(maltreatment)을 유발시킨다고 하였다[14]. 이후에도 Hillson *et al.*(1984)의 자녀학대 발생과정모델이 다른 학자들을 통해 문화권이 다른 부모들을 대상으로 검증되었다[15][16]. 다음으로 스트레스 인지이론에 노인학대를 적용한 연구로서 柳漢守 외(2007, 2008)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노인을 수발하는 가족수발자의 수발 부담감이 심리적, 신체적, 방임과 같은 형태로 표출된다는 인과관계에 대해 검증하였다[17][18]. 한편, 아내학대에서도 동(同)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이론을 채용한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Farrington(1980)은 남편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처방법을 못 찾게 되었을 경우, 아내에 대한 학대행위를 선택하게 될 경향이 있다고 보고 하였다[19]. 이 외에도 남편이 아내학대를 하게 되는 원인으로 직무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원인을 두고 있는 연구들[20-22]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관된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다.

한편, 스트레스와 학대의 관련성을 살펴 본 기존의 연구들, 특히 아동학대와 노인학대에서는 스트레스를 구성하는 내용으로 양육이나 수발 그 자체에 대한 부담감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아동이나 노인의 문제행동과 같이 대상자가 가진 성격이나 행동 특성 등으로 인해 양육자 또는 수발자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됨으로써 상대에 대한 학대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16][17]. 이러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고려할 때, 다문화가족 남편의 스트레스 구성내용으로 일상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내의 성격이나 행동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의 측면, 즉 아내로부터 받는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다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아내학대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아내학대가 다차원적이면서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93년 UN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선언(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에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은 사적, 공적 영역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신체적, 성적 또는 심리적인 위협과 고통을 주는 행위, 또는 그러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그러한 행위의 위협, 강제 또는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젠더에 기초한 모든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있다[23]. Straus *et al.*,(1996)은 학대를 절충, 심리적 공격, 신체적 폭력, 성적억압, 상해 등 5영역으로 살펴보고 있고[12], 김오남(2006)은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24]. 이들 가운데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보다 선행하여 나타나고, 장기적으로 볼 때, 심리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25-27]을 고려한다면 심리적 학대에 관한 파악 및 예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 또는 정신적 학대 등으로도 표현되고 있으며, 심리적 외상을 가져다주는 언동을 하는 것, 예를 들어 언어폭력 및 공간, 무시 및 거부 등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27].

그동안 다문화가족의 아내학대 연구는 주로 실태조사 및 사례보고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4][7][28],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갈등 및 언어능력, 남편의 아동기 학대경험이나 알콜 의존 등의 변수를 가지고 학대와외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29]를 제외하면 다문화가족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를 다룬 학술적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기존의 아내학대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남성가해자보다 여성 피해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아내학대를 주로 신체적 학대의 측면에서 그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여성 학대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의 시급성 때문에 연구대상의 초점이나 연구 주제가 주로 다문화가족의 아내 또는 아내의 신체적 폭력에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에 관한 실태조사 및 학술논문들의 연구 성과들을 통해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본다면 여성 피해자 뿐만 아니라 남성 가해자의 아내학대와 그 원인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검토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개

입 방안을 마련해 갈 필요가 있겠다. 1998년 가정폭력 범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남성가해자에 관한 연구들[30-32]이 진행되어 왔으나 이 연구들은 주로 개입프로그램의 개발연구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어 가해자의 학대행위에 대한 발생 원인을 검증하고 있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충남여성개발원에서 실시한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충청남도 16개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한국인 남편 1,000명으로 하였다. 설문지는 각 지역 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책임자를 통해 배포 및 회수하였고, 각 센터의 책임자가 조사대상자에게 설문 목적에 대한 설명 및 조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를 약속하여 이에 동의를 한 남편이 조사에 응답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545부(회수율 54.5%)였고, 분석에는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해 필요한 변수에 모두 응답한 271부(유효응답율 49.7%)가 사용되었다.

2. 측정도구

2.1 독립변수 :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는 다문화가족 남편에 대한 상담 및 기존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5문항)', '아내의 학대행동에 대한 스트레스(4문항)', '아내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4문항)', '아내의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3문항)' 등 4영역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는 4요인 2차 요인 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방식의 4점 척도(0점: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에서 3점: 매우 그렇게 느낀다)로 측정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종속변수 :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는 남편에 대한 상담 경험 및 기존의 연구들을 기초로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5문항)', '언어적 폭력(4문항)' 등 2영역 총 9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는 2요인 사고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은 Likert방식의 3점 척도(0점: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 1점: 드물게 있었다, 2점: 자주 있다)로 측정하였고, 분석 시에는 '지금까지 전혀 없었다'를 '0점: 없다', '드물게 있다'와 '자주 있다'를 '1점: 있다'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즉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빈도가 잦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3 통제변수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학대 간의 관련성을 보다 정확히 알아보려고 부부의 연령차, 남편의 월수입, 평균 결혼지속기간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3][33].

3. 자료분석방법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SPSS12.0J for Windows와 M-plus2.14를 사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자료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치를 구하였다. 이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학대, 각각의 측정척도에 대한 구성개념타당성 및 Cronbach's α 신뢰성계수와 Kuder-Richardson Formula 20(KR-20) 신뢰성계수를 통해 내적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구성개념타당성의 경우,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척도는 앞서 언급한 4요인(아내와의 관계, 아내의 학대행동, 아내의 능력, 아내의 성격)을 1차 요인,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를 2차 요인으로 하는 2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하였고, 심리적 학대에 대한 측정척도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 언어적 폭력을 각각의 요인으로 하는 2요인 사고모형으로 설정하여 검토하였다. 각 요인구조모형 및 인과관계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은 상관계수의 경우, 사분상관계수(tetrachoric

correlation)와 다분상관계수(polychoric correlation)로 구했고, 추정법은 WLSMV(Weighted Least Square parameter estimates using a diagonal weight matrix with robust standard errors and mean-and variance-adjusted chi-square test statistic)법을 채용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적합도 지표 CFI(Comparative Fit Index)와 RMSEA(Root Mean Square Error Approximation) 수치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CFI는 0.90이상, RMSEA는 0.08이하이면 그 모형이 데이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34]. 분석모형의 표준화계수(경로계수)에 대한 유의성은 비표준화계수를 표준오차로 뺀 값(이하 t값)의 절대치가 1.96 이상(5% 유의수준)을 나타내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35].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

조사대상자의 속성은 [표 1]과 같다. 먼저 남편의 연령은 평균 42.3세(표준편차 6.0, 범위 27~64세), 아내의 연령은 평균 27.5세(표준편차 5.9, 범위 19~58세)로 나타났다. 남편과 아내의 나이차는 평균 14.8세(표준편차 6.6, 범위 14~33세)였고, 결혼지속기간은 평균 3.9년(표준편차 3.0, 범위 13개월~17년 1개월)이었다. 남편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가장 많은 166명(61.3%)이었고, 다음으로 '중학교 졸업'이 72명(26.6%)을 차지하였다. 남편의 월수입은 '100~200만원 미만'이 126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미만'이 85명(3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아내의 출신국은 '베트남'이 141명(52.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국'과 '필리핀'이 각각 44명(16.2%)을 차지하였다.

2.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 평균득점 산출결과

연구모형 검증에 앞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평균득점을 산출하였다.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의 구성개념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학대행동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능력에 대한 스트레스', '아내의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를 1차 요인,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를 2차 요인으로 하는 4요인 2차 요인모형으로 설정한 후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모형 적합도 지표인 CFI=0.936, RMSEA=0.098로 대체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척도의 내적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s α =0.942로 나타났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척도의 모든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득점을 산출한 결과, 평균 6.5점, 표준편차 8.1, 범위는 0-48 점을 보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기본적 속성(n=271)

변수		평균±표준편차(범위)	
연령	남편	42.3세±6.0(27-64세)	
	아내	27.5세±5.9(19-58세)	
부부의 연령차		14.8세±6.6(14-33세)	
결혼지속기간		3.9년±3.0(13개월-17년 1개월)	
변수		빈도(명)	백분율(%)
남편의 학력	중학교 졸업 이하	72	26.6
	고등학교 졸업	166	61.3
	2년제 대학 졸업	11	4.1
	4년제 대학 졸업	22	8.1
남편의 월수입	100만원 미만	85	31.4
	100-200만원 미만	126	46.5
	200-300만원 미만	40	14.8
	300만원 이상	9	3.3
	수입 없음	11	4.1
아내의 출신국	베트남	141	52.1
	중화인민공화국	44	16.2
	필리핀	44	16.2
	캄보디아	22	8.1
	기타(태국, 일본 등)	20	7.4

다음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의 구성개념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2요인 사교모형('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 '언어적 폭력')으로 구성한 후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CFI=0.993, RMSEA=0.041로 통계학적인 허용수준을 충족시키고 있었다. 이어 심리적 학대 척도의 내적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뢰성을 확인한 결과, KR-20 신뢰성계수는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이 0.832, '언어적 폭력'이 0.646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아내에 대

한 심리적 학대 두 요인의 문항을 각각 합산하여 평균득점을 산출한 결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의 평균득점은 1.0점, 표준편차는 1.5, 범위는 0-5점, '언어적 폭력'의 평균득점은 0.6점, 표준편차는 1.0, 범위는 0-4점이었다.

표 2. 측정척도의 타당도, 신뢰도, 평균득점 분석결과

변수	타당도	신뢰도	평균득점 M±SD(range)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CFI=0.936 RMSEA =0.098	Cronbach's α =0.942	6.5±8.1 (0-48)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		KR-20	
무시 또는 차단	CFI=0.993 RMSEA =0.041	0.832	1.0±1.5 (0-5)
언어 폭력		0.646	0.6±1.0 (0-4)

3.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학대의 관련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4요인 2차 요인모형)를 독립변수, 심리적 학대(2요인 사교모형)를 종속변수, 부부의 연령차, 남편의 월수입, 결혼기간을 통제변수로 하는 인과관계모형을 설정하여 모형의 적합성과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모형의 데이터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자 적합도 지표를 살펴본 결과, CFI=0.909, RMSEA=0.057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치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변수 간 관련성을 확인한 결과,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심리적 학대 요인인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611,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에서 '언어적 폭력'으로 향하는 경로계수는 0.635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강하게 인지하고 있을수록 아내에게 심리적 학대를 가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기여율은 39.8%, '언어적 폭력'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기여율은 42.0%를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통제변수로 투입한 변

수들 가운데 결혼지속기간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과 '언어적 폭력'에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남편이 아내에게 심리적 학대를 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간 연령차와 남편의 수입은 스트레스와 학대 어느 변수에 대해서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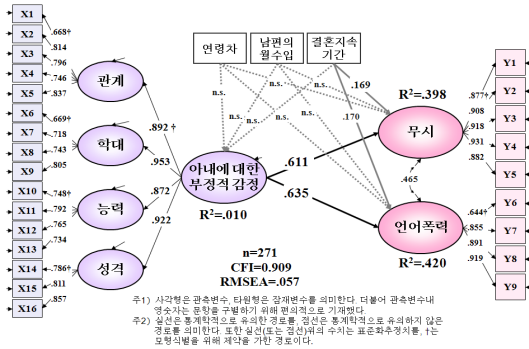


그림 1. 모형 분석 결과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정폭력 예방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학대의 관련성을 검증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분석에는 회수된 545명의 데이터 중, 분석을 위해 필요한 문항에 모두 응답한 271명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결혼치를 추정치로 치환하여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번 분석에서 사용한 표본수는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한 통계분석에 있어서 유효한 수라고 판단하여 271명의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측정척도의 타당성과 신뢰성은 통계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에 있었다는 점에서 각 척도가 일반성을 갖는 척도라고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남편이 아내에 대해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강하게 느끼고 있을수록, 남편은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무시 및 차단' 또는 '언어적 폭력'이라는 심리적 학대를 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인지가 남편

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이 검증된 것이고, 또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대라는 부적절한 대처 행동을 표출한다는 스트레스 인지이론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다문화가족의 남편은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아내에게 분노를 표현하거나 아내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학대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남편의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피학대자의 정신적 건강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이 이미 선행연구들을 통해 지적되어 왔다 [25][26][36]. 또한 부부라는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학대는 인권의 측면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 나아가 가정폭력은 세대 간 전달 가능성이 높다는 점[37][38] 등을 고려한다면,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 및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 등과 관련한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통 가정폭력은 남녀쌍방의 다툼 과정에서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고려한다면, 남편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아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부교육프로그램(예를 들면, 의사소통기술, 분노조절방법, 상호간 문화이해 등)이나 아내가 스트레스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프로그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론적인 측면에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체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지 체계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이 센터는 가정폭력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다문화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직접적이고, 가장 근접한 전문적 자원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 한 스트레스 척도를 가지고 다문화가족 남편의 스트레스 상황을 파악하여 이들이 스트레스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측면에서 가능한다면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다문화가족(또는 아내가 같은

출신국인 다문화가족 부부)의 자조모임 구축과 지원 등 정서적 지원 체계가 조직적으로 마련된다면 부부 상호간 이해 증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검증한 학대발생요인을 바탕으로 정책적 고찰을 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의 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복지정책을 정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년 12월)을 바탕으로 가정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다문화가족에 있어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3월 제정, 2008년 9월 시행) 제 8조에서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방지의 책임을 가질 것으로 명시하면서 이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가정폭력피해를 입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외국어통역서비스가 마련된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것과 법률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법률상담과 행정지원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를 근거로 한 지원서비스로서 여성가족부가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365일 24시간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 시 또는 정보가 필요할 때, 베트남어,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 태국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등 8개국 언어로 통역 상담 지원과 관련기관(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경찰, 변호사, 병원, 여성단체, 복지단체 등)에 연락을 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주자 전용 컴퓨터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결혼생활 유지가 불가능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아이들을 위해 전액 무료로 숙식 제공 및 의료지원, 법률지원, 이혼수속, 출국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8]. 그러나 이러한 자원들은 학대 정도가 가장 심각한 상태이면서 이미 학대가 발생한 이후에 대처하는 사후지원이라는 점에서 학대 예방차원에서의 역할로는 다소 한계점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증한 학대발생요인인 배우자에 대한 스트레스의 측면에서 부부의 스트레스 관리를 중심으로 한 학대 예방 지원체제로의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결혼지속기간이 길수록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를 하게 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결혼지속기간과 심리적 학대의 관계성이 유의하지 않거나 반대로 결혼지속기간이 짧을수록 신체적 학대의 발생빈도가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24][29].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계속적인 검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결혼지속기간의 심리적 학대에 대한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중시한 개입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남편의 아내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심리적 학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스트레스 인지이론을 지지하는 결과였으며 실천적으로는 남편의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를 사회복지학적인 측면에서 생활욕구(needs)라고 본다면, 아내에 대한 심리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남편의 배우자 스트레스 관리 및 부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모형 설정 시 보다 풍부한 변수를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추후에는 이러한 결과를 발전시켜 심리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 예를 들면, Berkowitz(1993)가 제시한 가정폭력 촉진요인모델 중 가정폭력 촉진의 직접영향요인인 개인적 요인, 즉, 공격성(aggressiveness) 및 규범과 가치관(Norms and values), 자존감(Self-esteem level), 사회적 기술(Level of social skills), 음주습관(Drinking habits) 등을 고려하여 보다 상세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39]. 더불어 스트레스와 학대를 완화 또는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요인을 투입하는 방안과 학대 유형을 심리적 학대를 비롯한 신체적 학대나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등으로 확대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참 고 문 헌

- [1] 통계청 보도자료, 2013혼인 이혼 통계, 2014.4.22.

- [2] 박민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아존중감과 적응유연성 간 관계 -심리적 행복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93-402, 2011.
- [3] 위인백, “인권과 사회통합관점에서 본 여성결혼 이민자 관련법”,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pp.317-327, 2011.
- [4] 변화순, 이미정, 김혜영, 황정미, 이선형, *결혼이민 자여성의 가정폭력 피해현황과 지원체계 개선방안*,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8.
- [5] http://www.ytn.co.kr/_ln/0115_201210091802267980
- [6]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6/11/20130611004048.html>
- [7] 설동훈, 김윤태, 김현미, 윤홍식, 이혜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건수, *2005년 국제결혼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정책방안*, 서울: 보건복지부, 2005.
- [8] 여성가족부,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2010.
- [9] C. Dalton and E. M. Schneider, *Battered women and the law*, New York: Foundation Press, 2011.
- [10] 이옥희, *남편의 심리적 폭력이 아내의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인지요인을 매개 요인으로*,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 [11] J. G. Beck, J. McNiff, J. D. Clapp, S. A. Olsen, M. L. Avery, and J. H. Hagewood, “Exploring negative emotion in women experiencing intimate partner violence: Shame, guilt, and PTSD,” *Behavior Therapy*, Vol.42, pp.740-750, 2011.
- [12] M. A. Straus, S. L. Hamby, S. Boney-McCoy, and D. B. Sugarman,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Vol.17, No.3. pp.283-316, 1996.
- [13] R. S. Lazarus and S. Folkman,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14] J. C. Hillson and N. A. Kuiper, “A stress and Coping Model and Child Maltreatment,” *Clinical Psychology Review*, Vol.14, pp.261-285, 1994.
- [15] 唐軼斐, 矢嶋裕樹, 中嶋和夫, “母親の育児関連 Daily Hasslesと兒に對するマルトリートメントの關連”, *厚生の指標*, 第54卷, 第4号, pp.13-20, 2007.
- [16] 朴志先, 三輪英里子, 桐野匡史, 金貞淑, 尹靖水, 中嶋和夫, “韓國における母親の育児ストレス評価と兒に對するマルトリートメントの關係”, *東アジア研究*, 第51卷, pp.17-25, 2009.
- [17] 柳漢守, 桐野匡史, 金貞淑, 尹靖水, 筒井孝子, 中嶋和夫, “韓國都市部における認知症高齢者の主介護者における介護負担感と心理的虐待”, *日本保健科學學會誌*, 第10卷, 第1号. pp.15-22, 2007.
- [18] 柳漢守, 嚴基郁, 張英恩, 金貞淑, 中嶋和夫, “The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stress and abuse and neglect in the family caregiver,”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18, pp.59-75, 2008.
- [19] K. M. Farrington, “Stress and Family violence,” in *The social causes of husband-wife violence*, M. A. Straus and G. T. Hotaling(Eds).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p.94-114, 1980.
- [20] J. Barling, and A. Rosenbaum, “Work stressors and wife abuse,”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71, pp.346-348, 1986.
- [21] 손정영, *아내학대의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 [22] 김경신, “아내학대 행위자의 특성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제2호, pp.65-87, 2002.
- [23] <http://www.un.org/documents/ga/res/48/a48r104.htm>
- [24] 김오남, “결혼이민자가족의 아내학대와 영향요인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4호, pp.5-35, 2006.
- [25] C. M. Murphy and K. D. O’Leary, “Psychological Aggression Predicts Physical

- Aggression in Early Marriag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Vol.57, No.5, pp.579-582, 1989.
- [26] S. L. Hamby and D. B. Sugarman, "Acts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gainst a Partner and Their Relation to Physical Assault and Gender,"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61, No.4, pp.959-970, 1999.
- [27] M. A. Straus and S. Sweet, "Verbal/Symbolic Aggression in Couples: Incidence Rates and Relationships to Pers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Vol.54, No.2, pp.346-357, 1992.
- [28] 최규해, "한국남성과 결혼한 중국조선족 여성들의 한국에서의 적응기 생활체험과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5권, pp.219-244, 2005.
- [29] 김민경, "결혼이민여성의 학대와 관련요인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6호, pp.1181-1198, 2009.
- [30] 최규련, 유은희, 홍숙자, 정혜정, "가정폭력 예방 및 대처 프로그램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제37권, 제2호, pp.159-173, 1999.
- [31] 권진숙, 전석균, "가정폭력 가해자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 개입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44권, 제3호, pp.36-63, 2001.
- [32] 김경신, 김정란, "가정폭력 가해자 개입 프로그램 효과분석-아내학대 행위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7권, 제1호, pp.137-158, 2002.
- [33] 최의순, 고명숙, 이규은, 길숙영, "구타, 성폭력, 이혼을 중심으로 본 여성건강 문제에 관한 고찰",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2권, 제1호, pp.92-107, 1996.
- [34] 山本嘉日郎, 小野寺孝義, *Amos*による共分散構造分析と解析事例, 京都: ナカニシヤ出版, 1999.
- [35] M. K. Peek,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rehabilitation research," *American Journal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Vol.79, No.3, pp.301-309, 2000.
- [36] R. D. Maiuro and K. D. O'Leary, *Psychological Abuse in Violent Domestic Relations*,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p.197, 2000.
- [37] W. R. Downs, N. J. Smyth, and B. A. Mille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violence and alcohol problems among men who batter: an empirical review and synthesi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Vol.1, No.4, pp.327-344, 1996.
- [38] 김예정, 김득성, "가정폭력의 세대 간 전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6호, pp.141-153, 2006.
- [39] L. Berkowitz, *Aggression: Its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NY: Mcgraw-Hill Book Company, pp.240-271, 1993.

저 자 소 개

박 지 선(Ji-Sun Park)

정회원



- 2009년 3월 : 일본 오카야마현립 대학 대학원(보건복지학 석사)
- 2012년 3월 : 일본 오카야마현립 대학 대학원(보건복지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초빙교수

<관심분야> : 가족복지, 아동복지, 조사방법

류 한 수(Han-Su Ryu)

정회원



- 2006년 3월 : 일본 오카야마현립 대학 대학원(보건복지학 석사)
- 2010년 3월 : 일본 오카야마현립 대학 대학원(보건복지학 박사)
- 2008년 3월 ~ 현재 : 우송대학교 사회복지·아동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학대, 다문화, 조사방법